



[GM 먹튀논란]
노조 무서워
기자회견 취소
씩수 노란 GM
04



Economy

코스피	2476.11 (-1.60)	코스닥	858.70 (-7.23)
금리 (국채 3년)	2.31 (+0.02)	환율 (원/달러)	1068.00 (-1.30) (14일)

“회계감사비 폭리, 문제 많다” 감독당국 칼 빼나

‘재감사비용 10배 폭리’ 방지 위해 ‘의견거절’ 받은 퇴출 위기 상장사 기존 회계법인외 타법인 감사허용

앞으로 상장사의 회계감사재감사 때 감사비를 큰 폭으로 올려 폭리를 취하는 회계법인의 횡포가 사라진다. 기존 회계법인 외에 다른 회계법인도 재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상장사의 재감사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상장사가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기존 회계법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재감사 비용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회계업계에 따르면 외부감사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 재감사 때 다른

회계법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책이 곧 나올 예정이다.

현재 KRX 상장규정에 따르면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기존 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아야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감사비를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본지 5월 10일자 3면 참조)

실제로 지난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가 재감사 결과로 살아난 트루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기존 감사계약 당시 보수는 4200만원이었다.

하지만 재감사 때는 총 4억9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또 다른 A기업은 감사보수로 10억원을 지불했다. 기존 감사보수(5000만원)의 20배를 지불한 것. 감사에 소요된 시간이 888시간에서 6295시간으로 7배 이상 늘었지만 이를 감안해도 시간당 감사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는 회계법인의 높은 감사보수 요구에도 기업은 ‘올려 쳐자 먹기’로 기존 회계법인에 재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상장사의 경우 재감사를 받지 못하면 상장폐지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재감사 시 리스크 분산을 위해 다른 소형법인에서 재감사를 받은 후 재감사를 하겠다는 회계법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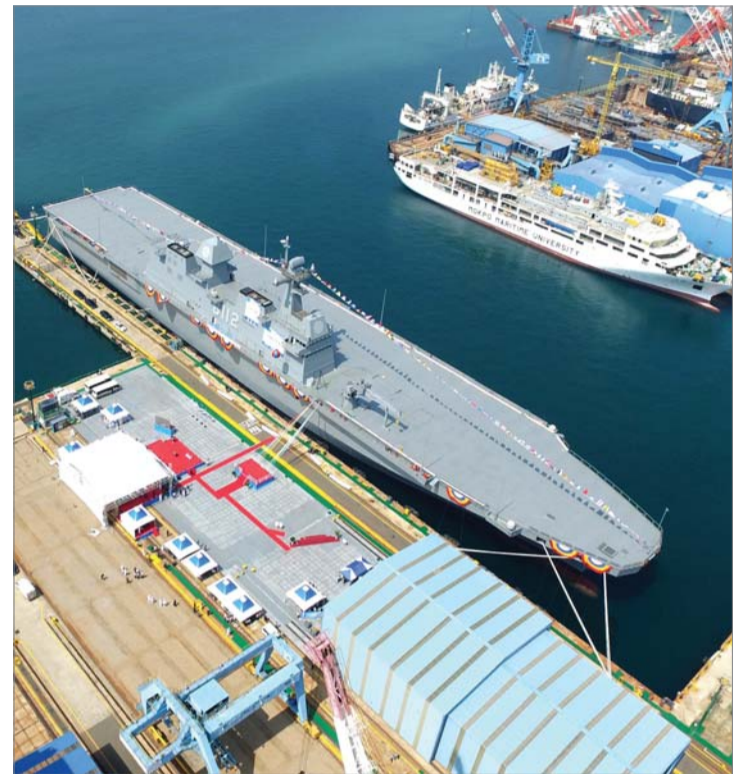
거래소는 금융당국과 협의

거쳐 앞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 재감사를 받을 때 기존 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회계법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외부감사 대책이 마련되면 상장사들은 재감사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른 회계법인과 경쟁가격을 유도해 적정한 시장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재감사 시 상장사의 감사보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감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상장사들이 ‘의견 소평’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해군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진수 14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독도함급 대형수송함 2번함인 ‘마라도함’(LPH-6112)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독도함과 같은 배수량 1만4천t급의 마라도함은 길이 199m, 폭 31m로, 최대속력은 23노트다. 1천여 명의 병력과 장갑차, 차량 등을 수송할 수 있고, 헬기와 공기부양정 2대 등을 탑재할 수 있다. 마라도함은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20년 말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사우디원전 내일 발표... 쏫리스트에 韓 포함

〈우선협상대상자〉

사업비 100兆 대형프로젝트

200억달러(약 21조5260억원) 규모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임박했다.

(본지 5월 4일자 1면 참조)

14일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오는 16일 원전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쏫리스트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쏫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도 우리나라가 사실상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건설한 UAE 바라카 원전 전경. /연합뉴스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1.4GW(기가와트) 원전 2기를 건설한 뒤, 2040년까지는 원전 16기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로, 총 사업 규모만 해도 100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우디 정부는 16일 2~3개의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2018년

말 최종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는 예비사업자로 한국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해 발표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지난 3일에는 사우디의 원전 정책을 총괄하는 칼리드 알팔리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이 방

한해 사우디대사관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 참가했다.

알팔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예비사업자 선정 전망을 묻는 질문에 “난 낙관적이다(I am optimistic)”라고 밝혔다.

이러한 인사말에서는 “오늘 저는 영광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기회가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담을 나눴다”며 “이 과정에서 양국 간 협업과 교차투자의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느꼈다”고 말한 바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北 핵실험장 폐기... 비핵화 시작 중요한 의미”

文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불법 해외재산 도피 대응 합동 조사단 설치 주문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절차 공개에 대해 14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불법 해외재산 도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청, 검찰,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합동조사단’ 설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공개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국가안보실 이상철 1차장, 남관표 2차장. /연합뉴스

그러면서 ‘비핵화 시작’과 함께 세 가지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간의 시간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

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양국 간에 잘 진행되

고 있다”면서 “전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해 우리 정치권도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일부 사회지도층이 보여주고 있는 해외소득 및 재산 은닉을 통한 역외탈세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직접재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보수의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社告

메트로경제가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메트로신문이 창간 16주년을 맞아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언론계 주인공을 찾습니다. 2002년 5월 창간한 이후 성장을 거듭하며, 올 3월에는 국내 언론사 중 유일하게 유·무료신문 동시발간 체제에 돌입한 메트로신문이 유능한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매일 아침 시민들에게 <메트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창간 16주년인 2018년을 맞아 관공서·기업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5일 유료신문인 <메트로경제>를 직접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메트로신문은 신문의 격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유능한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16년 역사의 메트로신문과 함께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인재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문 : 산업 / 금융 / 유통 / 정치분야 취재기자
- 모집내역 ①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② 모집인원: 0명
- ③ 응시자격: 해당 분야 경력 3~10년 사이
- 〈공통사항〉 ①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부 (지원서 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지원서에 사진부착)
- ② 졸업증명서 1통, 석·박사 학위증명서(해당자) 1통
- ③ 기명기사 3건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②③항의 서류를 면접 시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2018년 5월4(금) ~ 2018년 5월18일(금) 오후 6시까지
- ② 접수방법: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5월 18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18(옥인동)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앞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본지 웹사이트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문의: 경영지원실 (02-721-9826)